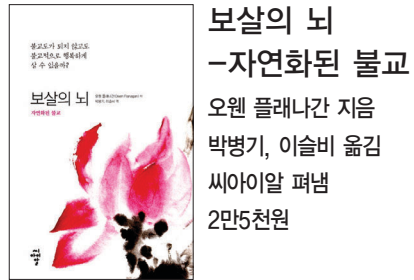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5 ~ 3/11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마을
2	삶은 환타지다	윤희	민족사	7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3	비율수록 기록하네	정목	생앤피커스	8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노	순요 담앤북스
4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9	공 -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민족사
5	담마빠다-빠알리어 직역 법구경	일가	불광출판사	10	능가경 강의	남희근	부키



자연화된, '철학' 으로서의 불교



“자연화된 불교”라고 이름붙인 불교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마찬가지로 불교도 포괄적인 철학이다.”

2011년에 초판이 나온 <보살의 뇌-자연화된 불교>는 미국 듀크대학의 철학교수 오웬 플래나간이 심리철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펼친 저서이다. 지금까지 많은 불교 및 불교철학 입문서들이 출간됐지만, 서양의 주류 철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지 불교철학 입문서가 아니라 불교철학으로 분석철학의 문제들을 서양 철학계가 인정할 방식으로 논의한 첫 안되는 저서 중 하나이다. 박병기, 이슬비 번역으로 국내에서 출판됐다. 플래나간은 분석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대다수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논제와 주장들, 한국의 불자들 대부분에게 익숙한 불교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1부에서 비교신경철학을 논의하고, 2부에서는 자연철학으로서의 불교를 논하고 있다.

파의 불교가 인정할 수 있는 초기불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현대 인식론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자연주의'를 통해 상당한 체계성과 막강한 경험과학적 근거를 가진 불교 이론으로 불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믿음에 대한 정당화의 가능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불교윤리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플래나간의 '자연화된 불교'가 갖는 의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연화된 불교는 특정한 종교로서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불교적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 수 있음을 불교 자체에 근거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자연화된 불교는 자연주의를 통해 기존 불교철학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보편윤리로서 불교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천성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자연화된 불교는 자연화된 윤리학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비판에 대한 훌륭한 방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넷째, 자연화된 불교는 명상을 단순한 정신훈련을 위한 기술이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교철학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명상에 대한 철학적, 자연주의적 기반을 제시해주고 있다.

불자 아니면서 '불교적 행복' 가능
'자연화된 불교'가 해답
윤회·업 등 초현실적 교리없이도
불교는 훌륭한 철학이자 윤리학

제1부 '신경철학에 대한 에세이'에서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상식이지만 심리철학 연구자들에게는 비상식적일 수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플래나간의 결론은 보살의 뇌를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식적인 마음이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넘어서는 '가장 복잡한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제1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우주의 자연적 일부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오직 여기에 존재하는

이 자연적 세상 속에 있는 체화된 우리의 신경 체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저항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여 불교나 어떤 다른 영적 전통으로부터 황홀경, 혼란스러움 또는 신비주의의와 같은 것을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

제2부에서 다룬 것은 '자연철학으로서의 불교'로, 저자는 “덕(德)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행복의 원인이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이 주장을 위해서 플래나간은 분석철학자로서 서양의 여러 윤리학 이론과 불교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설명한다.

21세기 초반 한국의 상황 속에서 불교는 주로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의 극복은 우리 불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삶의 의미 모색이라는 정신적 영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그 출발점은 불교윤리의 회복에서 모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윤리는 다시 불교의 종교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한 종교적 신앙보다는 삶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삶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윤리적 신념에 근거해 모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요청의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화된 불교'라는 플래나간의 새로운 시도를 바라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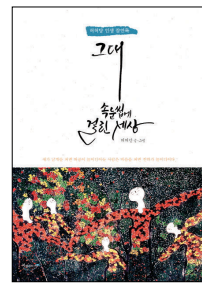
플래나간은 기본적으로 세계시민적 관점과 비교 신경철학의 관점에서 불교의 핵심 교리를 분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의 세계시민적 관점은 동양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과 서양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을 대비시키는 데서 잘 드러나고, 비교 신경철학의 관점은 불교적인 이상적 인간 상으로서 보살의 뇌가 일반인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 있다. 역자는 말한다. “이러한 그의 시도들은 전통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 한국인들의 불교 인식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잠언 160편속에 담긴 불교적 가르침

그대 속눈썹에 걸린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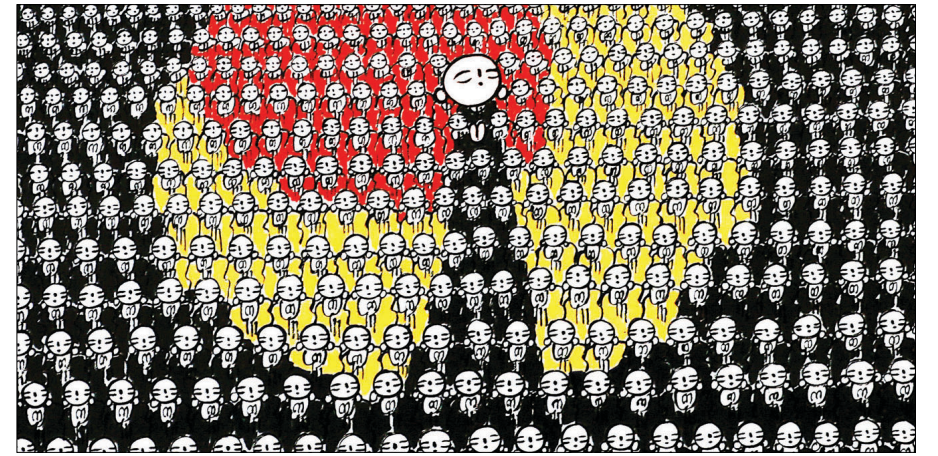
허허당 글 | 북클라우드 펴냄 | 1만3800원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걸림 없는 대자유가 있다.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 세상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다. 나를 버리면 일체만물이 내 거된다.”(나를 버리면중에서)

30년째 선화를 그리며 글을 쓰고 있는 허허당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홀로 있지만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해 왔다. “누군가 깨달았을 때는 빛이 흘러나 가게 마련이다. 꽃향기 번지듯이. 세상 사람들이 덩달아 밝아지고 깨달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허허당 스님. 그래서일까. 스님은 트위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수만 트위터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전작인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서는 세상 모든 이들의 아픔을 달래 주었고, <비람에게 길을 물으니 네 멋대로 가라 한다>에서는 스스로 일어날 힘을 갖고 있다며 응원을 전했다. 이번 새 책에서 허허당 스님은 위로와 응원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통쾌한 답변을 들려준다.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허허당 작. 회암법계도-범아일러

요?”라고 허허당 스님께 물으면 답변은 분명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노는 일 외에 무엇을 더하겠는가?” 어느 인터뷰서 스님이 밝힌 인생의 정수다. “다섯 살 때 내가 울면 하늘이 울고, 내가 웃으면 하늘도 삼라만상으로 따라 웃더라고.” 천진한 다섯 살 아이처럼 세상 모든 것에 존재 자체가 반응하며 즐겁게 놀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스님조차도 50세의 나이를 넘기고서야 다섯 살 때 품던 동심을 되찾았다고 고백한다. 고단한 인생서도 아이의 동심을 기억하며 순수하게 웃을 수 있다면, 세상은 놀이터처럼 신명 나는 즐거움을 건넬 것이라는 게 바로 스님의 생각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허허당 스님이 들려주는 짧은 글 속 긴 울림을 남기는 통쾌한 지혜가 가득한 책이다. 가령 '최고의 행복'이란 제목이 달려 있는 글을 보면 “그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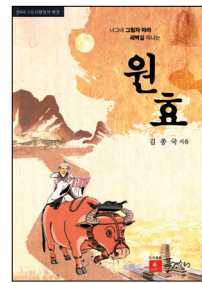
세상 전부를 가졌다 해도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다면 그보다 큰 불행이 없을 것이다. 나누어라, 그것이 세상을 사는 최고의 맛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전한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삶의 정수를 무엇에 담은 1장 '인생은 노는 것이다'를 비롯해 자신의 내면과 조우해 스스로 깨닫게 되는 2장 '끝에서 끝을 보라', 마음을 비우고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3장 '쉬어라 세상 그리 바쁘지 않다', 자연에서 길어 올린 깨우침을 전하는 4장 '아름다운 것들이 더욱더 아름답다' 등이다. 이와 함께 스님의 그림 70여 점도 실려 있다. 이미 유럽서 수차례 전시회를 열기도 한 내용이 돋보인다. 글처럼 마음을 울리는 선기가 전해지는 그림은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주는 보너스다.

김주익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효' 를 다시 읽는다

원효
김종국 지음 | 풍경소리 펴냄 | 2만원



요석공주, 설총, 화정, 소성거사, 일체유심조, 대승기신론 소... 신라시대, 화쟁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으며 수많은 저술을 통해 한국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된 원효(617~686) 스님의 이

야기다.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스님의 이름과 발자국은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책은 경산시립박물관장을 역임한 김종국 박사가 원효 스님에 대한 기록과 구전을 모은 원효 설화 모음집이다.

이번 책은 실제로 원효 스님이 체험한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설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여기에는 그 무엇보다 강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 책은 전국에 전해져 온 원효 스님의 설화를 집대성하면서 스님이 남긴 위대한 사상과 업적, 그리고 학문적 입장을 숨김없이 표현하려 했다. 저자는 “통일신라 직전 신라의 불교가 소

승과 대중화 과정을 겪으면서 스님에 대한 기존 세력들의 편향적 입장이 스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흐리게 한 바 없지 않지만, 후대 <송고승전>에 나타난 스님에 대한 기록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책이 스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스님의 사상을 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책에는 <송고승전>, <삼국유사>, <임간록> 등 내용들을 비교한 글도 함께 실려 있다. 한편 저자는 초판본 500권을 대부분 전국에 스님들께 법보시했으며, 이번 출간된 증보판은 초판(307쪽)에 50여 쪽을 덧붙여, 총 80여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박재원 기자

불교수행의 입문서, 깨달음을 향한 필독서!

선가귀감 禪家龜鑑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東巖 正愚 스님의 언어로 다시 듣는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 선사가 1564년 금강산 백화암에서 찬술한 책이다. 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당시 시대상황에서, 수행자들이 어떻게 불교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할 것인지 안내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정우 스님은 은사이신 철우 태주 선사가 평생 지니고 공부하던 1,600년경 목판본 <선가귀감>을 저본으로 오래전의 가르침을 지금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 강설했다.

휴정 지음 | 정우 강설 | 284쪽 | 2014년 1월 25일 출간 | 값 18,000원